

운송 Analyst 배기연

02. 6454-4879

kiyeon.bae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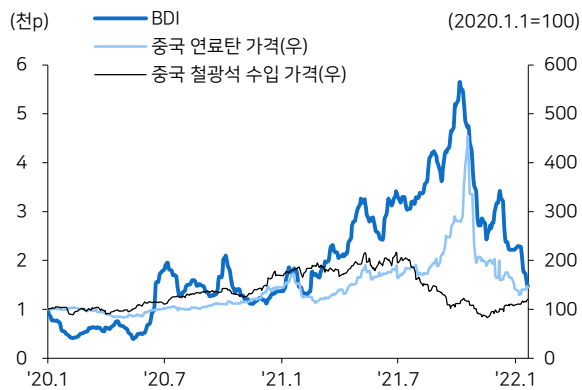
2022. 1. 21 (금)



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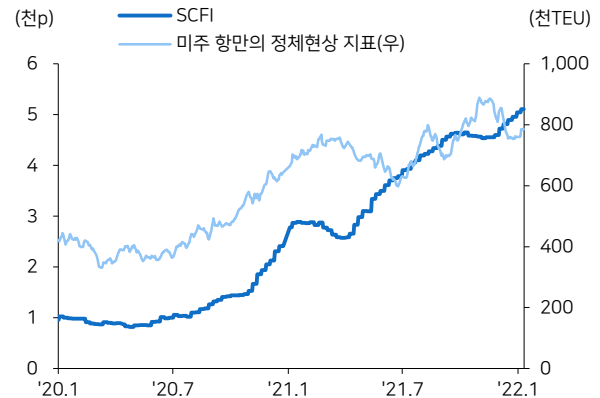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

1,474.0p(-96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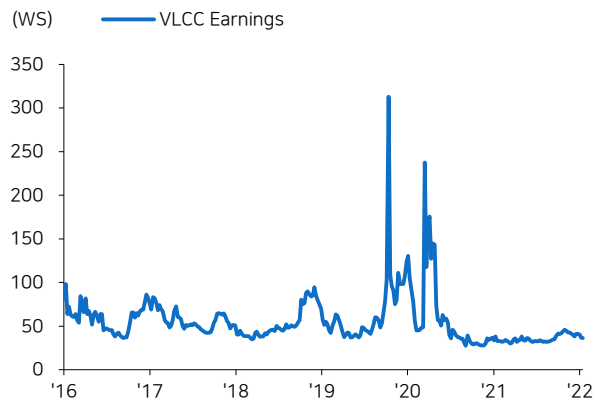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

5,094.4(-15.2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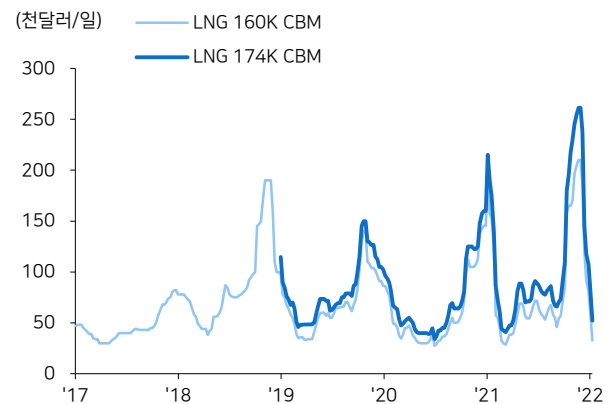


VLCC Spot R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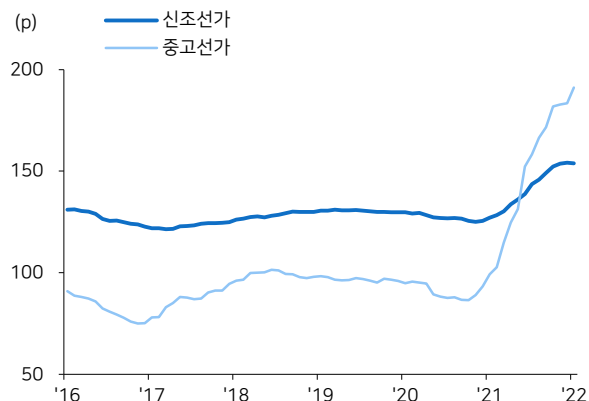
36.4p(-0.3p WoW)



LNG Spot 운임

32.8p(-25.0p WoW)
52.3p(-28.5p WoW)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53.9p(+0.8p WoW)
191.0p(+5.0p WoW)

항공화물 처리량

317.6p(-1.5p DoD)
99.4p(-1.5p DoD)

자료: Clarkson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Indonesia revokes coal export ban for companies meeting domestic obligation

인도네시아 정부는 DMO 이행률이 100%인 139개 기업에 한해 즉각 수출을 허용함. 18-20일 동안 개최된 DMO이행확인 회의에서 동안 2022년 1월 19일까지 이행률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도됨. (S&P Global)

Yards face fresh wave of orders for 7,000-teu neo-panamax container ships

약 40억달러규모 6,000~7,000TEU급 컨테이너선 약 30여척이 수개월 동안 발주될 전망이다. HMM, 장금상선 등이 발주자로 거론됨. HMM은 12척, 장금상선은 6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도됨. (Tradewinds)

'Historic' low: just four container ships scrapped in second half of 2021

2021년 하반기, 컨테이너선 폐선량은 4척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. 2021년 총 폐선량은 16,500TEU로 2020년의 194,500TEU를 크게 하회함. 높은 폐선가에도 선주들은 폐선보다 용선을 택해 이윤을 창출한 것으로 보도됨. 향후 최소 2022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폐선율이 지속될 것으로 보도됨. (Tradewinds)

한국-싱가포르 무격리 관광교류 조만간 재개 '파란불'

한국의 '트래블 버블' 첫 체결국인 싱가포르와의 무격리 관광교류가 2월 하순 결정됨. 지난 11일, 영국 출발 호주·뉴질랜드행 싱가포르항공기의 싱가포르공항 경유도 재개된 바 있음. (에어진)

ExxonMobil set to launch bid process for Russia Far East LNG project

미국 ExxonMobil이 대규모 Russia Far East(RFE) LNG 프로젝트 입찰을 개시할 예정임. 연간 620만톤을 생산하는 시설임. EPC 입찰 초대장은 2-3월 중 송부될 예정이라고 보도됨. 금번 EPC는 JGC, Chiyoda, Saipem, McDermott, Technip Energies 등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. (Upstream)

Capesize bulker market hits 18-month low as Indonesian coal ban meets China's iron ore demand slump

Capesize 벌크선 운임이 1년반래 최저치를 기록함. 인도네시아 석탄수출금지 및 중국 철광석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고 보도됨. 인도네시아 석탄금수를 시작으로 최근 2021년 중반대비 큰 하락세를 보이며 단기전망을 가능케한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